

인민대중 속에 퍼졌다는 “공황상태”와 “낙담”

중국 정권 프로파간다 총책임자가 비친 암시

2021년 11월 10일, 미하엘 프리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www.thecommunists.net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사회주의자들도 대개 자신의 세계관과 가까운 글들을 읽는 경향이 있다. 매우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계급적 적의 매체를 읽어보는 것이 유용한 경우도 있다. 그러한 적들이 자신의 프로파간다를 펼쳐 보이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당연히, 그러한 글들은 걸러서 읽어야 하며,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행간을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취한다면, 계급의 적들이 낸 글들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내적 모순을 감지하는 데 많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어제 중국 환구시보는 후시진 총편집인의 매우 흥미로운 사설을 실었다. 환구시보는 중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내는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의 주요 대변지다. 후시진은 환구시보의 오랜 편집장이자 베이징 통치자들의 프로파간다 책임자다. 즉 후시진은 중국 제국주의의 중요한 대변자다. 그의 사설은 개인 의견을 넘어 가장 중요한 강대국 중 한 나라의 지배계급 의견을 반영한다.

"무역전쟁, 팬데믹 대처로 중국 인민의 정치적 자신감이 높아지다"라는 제목의 이 사설은 겉으로 봐서는 크게 흥미로운 글로 보이지는 않는다. 놀랄 것도 없이, 사설은 집권 "공산당"을 지난 몇 년간의 정책을 들어 칭송한다. 특히 저자는 가속화하는 미국과의 패권경쟁과 팬데믹에 대한 정권의 대처를 응원하는 치어리더 역할에 주력한다.

그러나 글을 자세히 읽고 신중하게 조율된 표현에 주목한다면, 스탈린주의-자본가 독재가 지난 몇 년 동안 직면한 문제들을 좀 더 잘 꿰뚫어볼 수 있다.

중국 인민에게 "패닉"을 일으킨 "두 가지 도전"

후시진은 정권이 직면한 양대 도전을 들어 논고를 시작한다. 먼저 그는 “두 사건이 중국 사회에 패닉을 가져왔”음을 인정한다. “지난 몇 년간, 두 가지가 중국을 가장 크게 강타했다.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감행한 무역전쟁의 급고조로 촉발된 중·미 간의 전략적 충돌이다. 다른 하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이다. 두 사건 모두 초기 단계에 패닉을 중국 사회에 가져왔고 중국 사회의 자신감이 시험대에 올랐다.”[2]

우리는 후시진이 지난 2년 동안 정권이 직면했던 다른 두 가지 위기를 "잊어버린"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2019년 6월에 시작된 홍콩 민중항쟁[3]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해 가을 자본주의 세계경제 대공황의 시작이다. 대공황의 진행에 대한 우리의 분석에서 지적했듯이, 중국의 산업 이윤은 2019년 가을에 급격히 감소했다.[4]

물론 후시진의 이러한 '간과'는 우연이 아니다. 첫째, 정권은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정권을 두렵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 서방 정부들처럼 베이징도 경제위기가 자본주의 체제의 내적 모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과 그것에 대한 "필요한" 대응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과'와 관계없이,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논의하기 전에 먼저 후시진 사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어서 계속 제시해보겠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중·미 무역전쟁 초기 중국을 전면적으로 누르려는 미국의 태세에 많은 중국인들이 겁을 먹었다. 그들은 극도로 비관적이었고 중국의 좋은 날들이 끝나가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들은 우리의 경제발전이 미국의 제재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될까봐 두려워했다. (...) 이것은 그 당시 일부 중국인들의 특유의 정신상태, 즉 미국에 대한 두려움(恐美)과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후시진은 다행히도 "강력한 중앙 정부를 가져서 중국은 행운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중국은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두 번째 도전인 팬데믹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말에서 2월 초 우리 사회의 패닉 상태를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당시 상황에 많은 이들이 낙담했다."

물론 여기서도 "영명한" 총서기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영광스러운 "공산당"은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지난 몇 년간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성숙을 경험했다"고 저자는 결론짓는다.

각종 "맑스주의자들"이 미국의 오랜 패권에 도전하는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성격을 그릇되게도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 정권의 대표 선전가는 그의 국가가 강대국 빅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십분 인식하고 있다.[5]

코로나 반혁명 감행에 중요한 요인들

이 사설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정권 대변지의 총편집인이 그의 상관들을 칭송한다는 것이 아니다. 후시진은 지배 엘리트의 일원이며, 정권을 찬양하는 치어리더 일은 그의 일상 업무다. 이 사설의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제국주의 패권경쟁의 극적인 격화와 팬데믹이라는 두 위기가 중국 인민대중 속에서 "패닉", "낙담", "공포", "극도의 비관주의"를 야기시켰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인정은 RCIT가 2020년 2월 이래로 정립해온 중요한 테제를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수많은 글에서 중국 지배계급 (및 다른 모든 자본가 국가들의 지배계급)의 팬데믹 대응을 추동한 일차적인 동기는 공공보건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지배계급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임을 설명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정부들이 일련의 권위주의적인 조치들, 즉 계엄령 식 록다운 봉쇄령과 이어서 백신패스, 백신접종 의무화를 위한 구실로 팬데믹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RCIT는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극적 전환으로 대표되는 이 전 세계적인 반동 공세를 코로나 반혁명으로 성격규정 해왔다.[6]

중국이 전 세계 자본가 정부들 가운데 록다운 봉쇄령을 비롯한 이 반혁명 정책의 ‘선봉대’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록다운 봉쇄 정책은 과거 유사한 팬데믹 때 결코 시행된 적이 없던 정책이다. 2020년 1월 중국 정부가 계엄령 식 대량격리 령을 내리자 전 세계 대부분의 자본가 정부들이 몇 주 안에 그 뒤를 따랐다.

후시진의 사설은 중국이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에 주민 속에서 "패닉"을 일으킨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신의 성격에 충실하게도, 정권은 억압 수위를 급격히 높이는 것으로 이 두 위기에 대응했다.

서방 제국주의 정부들은 보통 모종의 부르주아 의회 민주주의 형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대공황의 시작과 글로벌 민중항쟁 물결과 강대국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 가속화 이 세 가지 사태가 결합하여 지배계급에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자본가 정부가 보여준 계엄령 식 록다운 봉쇄령 (그리고 기타 권위주의적인 조치들)이 서방의 독점 부르주아지에게 강한 매력으로 다가온 것이다.

왜 지금인가?

오직 눈을 가린 기회주의 좌파들만이 자본가 정부들의 공식 프로파간다를 순진하게 믿는다. 록다운 봉쇄, 백신패스,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 등이 자본가 정부들의 공공보건 돌봄 동기에 의해 추동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 기회주의 좌파뿐이다. 실제로 이들 자본가 정부는 결코 인민대중의 건강에 관심이 가 있지 않다. 늘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공공보건 예산을 줄였고, 지금도 계속 줄이고 있는 것을 보라. 그럼에도 지배계급에게 유용한 기회주의 좌파 백치들은 록다운 봉쇄를 비롯한 이 정책들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코로나 반혁명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좌파", "사회주의" 공언은 실제로는 이들의 사회-보나파르트주의 노선 — 입으로는 "사회주의"되 구체적 실천에서는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지지 노선인 —을 감추기 위한 엄폐물에 불과하다.

통렬하게도, 계급적 적의 대변인, 그것도 가장 중요한 강대국 지배계급 대변인의 프로파간다 사설을 읽는 것이 이들 사회-보나파르트주의 앵무새들의 수십 편 논설들보다 독점 부르주아지의 동기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줄 수 있다.

끝으로, 우리는 환구시보가 그러한 사실을 다름 아닌 지금 낸 것이 전혀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글들에서 보여 주었듯이, 중국 지배계급은 (세계의 여타 지배계급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폭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경제가 대공황 내 제2의 침체로 치달고 있고, 정전·단전과 글로벌 물류 대란은 "암흑의 겨울"을 가져올 수 있다. 독점 부르주아지가 이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추측해보라.

기회주의 좌파는 다시 지배계급에게 신뢰를 걸고 "위험에 처한 인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리에 군대를 출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노동자들에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는 노동자·피억압자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사회-보나파르트주의자들의 영향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단계의 반혁명 공세에 맞서 대중저항을 구축하는 데 진력할 것이다.

실로 중국 정권은 —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자본가 정권도 — 그러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두 번째 침체를 두려워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 베이징은 이미 그 배외주의 프로파간다를 대대적으로 확장 강화시켜 놓았고 대만과 그 뒷배 미국을 향해 전쟁 북을 치고 있다. 또 중앙정부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지 않은 (노조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팝스타들과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까지 포함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 대한 억압을 대폭 높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터질 수 있는 잠재적인 혁명적 위기에 대해 정권이 선제 예방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혁명가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깊어가는 위기를, 지배계급 타도를 위한 민중봉기로 전락시키기 위해 가능한 어디서든 투쟁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혁명가들은 명확한 투쟁 강령을 바탕으로 뭉쳐야 한다. RCIT는 모든 사회주의 활동가들에게 사회주의혁명 세계당을 만드는 데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1] Hu Xijin: Handling of trade war, pandemic consolidates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fidence, Global Times, 9 November 2021,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11/1238480.shtml>

[2] RCIT는 중·미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을 수십 차례 다루었다. 다음을 보라. The Coming Inter-Imperialist War on Taiwan. Revolutionary Defeatism against both Great Powers - the U.S. as well as China! 10 Octo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coming-inter-imperialist-war-on-taiwan/> [**<다가오는 제국주의 간 대만 전쟁>**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coming-inter-imperialist-war-on-taiwan/#anker_2]; The Meaning of the AUKUS Pact. The U.S. escalates the inter-imperialist Cold War against China and provokes the EU, 18 Septem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meaning-of-the-aucus-pact/> [**<오커스 조약의 의미 - 미국이 중국과의 제국주의 간 냉전을 고조시키고 EU를 자극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meaning-of-the-aucus-pact/#>

[anker_3](#)]; 다음 두 팸플릿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A Really Good Quarrel”. US-China Alaska Meeting: The Inter-Imperialist Cold War Continues, 23 March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s-china-alaska-meeting-shows-continuation-of-inter-imperialist-cold-war/>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 미·중 알래스카 ‘말싸움’과 이후>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s-china-cold-war-continues-after-alaska-meeting/>]; Servants of Two Masters. Stalinism and the New Cold War between Imperialist Great Powers in East and West, 10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anker_10];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를 보려면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3] 이 문제에 관한 가장 최근의 RCIT 성명이 있다. China / Hong Kong: The Beginning of the Counterrevolution. The new National Security Law represents a full-scale assault on democratic rights by the Stalinist-Capitalist regime! 1 Jul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hong-kong-the-beginning-of-the-counterrevolution/>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hapter 1 of the RCIT document: World Perspectives 2021-22: Entering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22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anker_14]

[5] RCIT는 중국에서 자본주의 복고와 중국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Vienna 2019, Chapter I,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자본주의 복고 과정에 대해서는 다

음을 보라.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이 문제에 관한 그 밖의 RCIT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6] 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로 광범위에 걸쳐 분석해 왔다. 2020년 2월 2일부터 우리는 90편의 소책자와 논문, 기사, 성명에 단행본 책까지 발표했다. 이 모든 것을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모아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특히 다음을 보라. RCIT Manifesto: COVID-19: A Cover for a Major Global Counterrevolutionary Offensive. We are at a turning point in the world situation as the ruling classes provoke a war-like atmosphere in order to legitimize the build-up of chauvinist state-bonapartist regimes, 21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cover-for-a-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덮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vid-19-cover-for-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다음의 RCIT 2차 시국선언도 보라. Manifesto: "Green Pass" & Compulsory Vaccinations: A New Stage in the COVID Counterrevolution. Down with the chauvinist-bonapartist police & surveillance state - defend democratic rights! No to health policy in the service of the capitalist monopolies - expand the public health sector under workers and popular control! 29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 [<"백신여권" & 백신접종 의무화: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단계>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anker_3];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A Marxist analysis and strategy for the revolutionary struggle, RCIT Book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이 문제에 대한 다음 우리의 첫 기사도 보라. Almedina Gunić: Coronavirus: "I am not a Virus"... but WE will be the Cure! The chauvinist campaign behind the "Wuhan Coronavirus" hysteria and the revolutionary answer, 2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uhan-virus/>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uhan->

[virus/](#)]; Michael Pröbsting: The Second Wave of the COVID-19 Counterrevolution. On the ruling class strategy in the current conjuncture, its inner contradictions and the perspectives of the workers and popular resistance, 20 Jul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second-wave-of-the-covid-19-counterrevolution/>; 같은 저자: The Police and Surveillance State in the Post-Lockdown Phase. A global review of the ruling class's plans of expanding the bonapartist state machinery amidst the COVID-19 crisis, 21 Ma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police-and-surveillance-state-in-post-lockdown-phase/>; COVID-19: The Great Barrington Declaration is indeed Great! Numerous medical scientists protest against the reactionary lockdown policy, 11 Octo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the-great-barrington-declaration-is-indeed-great/>; Michael Pröbsting: COVID-19: The Current and Historical Roots of Bourgeois Lockdown "Socialism". Police State and Universal Basic Income are key elements of the new version of reformist "War Socialism" of 1914, 19 Dec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ovid-19-the-current-and-historical-roots-of-bourgeois-lockdown-socialism/>. RCIT 아르헨티나 동지들의 다음 스페인어 기사들도 보라. Juan Giglio: La izquierda de la "Big Pharma", dejó de defender las libertades, 1 . . . 1 . . . 0 . . . 2 . . . 0 . . . 2 . . . 1 . . . ,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10/la-izquierda-de-la-big-pharma-dejo-de.html>; Juan Giglio: ¿Por qué la izquierda no cuestiona las políticas de la OMS? 8.9.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09/por-que-la-izquierda-no-cuestiona-las.html>